

위와 같은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술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고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법령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. 그리고 경제적·사회적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감면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.

IV. 기대효과

IBS 가산율 적용이 폐지되고 더 나아가 세액감면까지 적용된다면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녹색성장과 AI 산업기술 발전, 조세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, 스마트건축 활성화가 곧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사회·경제적인 선순환 효과로 인해 크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1.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

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은 <2050 탄소중립 로드맵 → 디지털 전환 가속 → 녹색건축 활성화>로 요약할 수 있는데, 특히 정부는 ‘스마트 시티(Smart City)’를 모토로 하여 도시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, ‘스마트’한 IBS를 도입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것으로 직결될 것이다.¹⁶⁾ IBS 인증제도도 그 일환으로서,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. 조명, 냉난방, 환기, 방재 등 각종 서비스의 자동제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,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제어 및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IBS를 도입한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. 또한 이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부합한다.

이러한 효과는 단지 개별 건축물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 및 AI 활성화 정책과 직결되며, IBS의 확산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.

16)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(2019. 6. 21. 국토교통부) 참고